

김호득, 학교재

《김호득 개인전》(학교재갤러리, 2019.3.6.-2019.4.7.) 리뷰

김소정

학교재는 어떤 작업과도 잘 어울린다. 특히 대형 회화가 잘 어울리는데, 높은 층고와 2관으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은 작가가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쏟아부은 모든 작업을 보여주기 더할 나위 없는 곳이기도 하다. 몇 년이 지나도 학교재에서 한 000의 전시를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김호득의 학교재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가의 자량과 같은 먹 획 작업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먹으로 그린 획 작업은 널찍한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미색 한지, 그리고 광목에 강하게 그어진 선과 그 옆에 마구 튄 먹물을 보면 작가는 왠지 힘이 넘치는 사람일 것 같다. 작품을 보며 작가가 큰 풍채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상상했다. 실제 작가는 날렵한 할아버지였다. 호쾌하고 작업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작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 보인다.

노출된 천장의 서까래의 나무 빛과 광목 위의 먹은 전시장 분위기를 고요하게 진정시켜 주었다. 전시장의 먹 작업은 자리를 꿰차고 자기 몫을 하고 있다. 먹으로 작업한 작가들을 설명할 때, 많이들 덜어냄과 선비의 기상을 이야기하지만 먹 작업을 볼 때마다 되려 뽐냄의 기운이 우세할 때가 있다. 200호 정도의 광목에 그어진 선을 보면 작가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고뇌라는 단어도 먹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데, 이 전시에서만큼은 작품 하나하나에 자긍심이 느껴진다. 마치 나보다 먹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 광목에 밀칠 없이 먹 하나로 승부를 본다는 것이 자신의 기량을 완벽히 이해하고 뽐내는 것과 같다. 고회가 가까워진 작가에게서 느끼기 좋은 감정이었다.

1 전시장 안쪽에는 높은 층고의 전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작가는 앞서 시작한 획 작업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마냥 가장 길고 잘생긴 획의 화면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1 전시장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는 관람객이 처음 왔을 때, 자신의 획을 느끼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할 듯했다. 결국 그의 작업 인생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먹이 아니라 획이 아닐까.

2 전시장으로 넘어가면 작가는 획뿐만 아니라 먹도 그의 장기라는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두 번째 공간에서 그는 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 물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전시한다. 번진 먹의 화면은 그가 앞서 뿜내던 획이 아닌, 먹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한쪽 벽에는 네 면으로 접어 먹이 한지에 흡수되는 과정을 하나씩 남긴 작업들이 줄지어 있다. 작업을 주의 깊게 보면 한지에 먹이 퍼져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먹이 한지 위에 닿아 퍼져 나가는 형상이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깊이를 달리한 화면이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다. 이 공간에 들어서면 먹의 향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학교재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종종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계단의 폭이 좁아 관람객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작가의 노트나 매체에 대한 생각을 전시하기에 좋은 공간이며, 작가 또한 공간에 그가 생각하는 먹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

지하 1층에는 먹의 번짐을 파도 끝물 거품이 퍼지는 데에 비유하는 듯 먹 번짐 위에 영상을 투사한다. 먹의 번짐이 파도의 물거품처럼 번져 나가는 영상은 2 전시장 전체가 먹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먹의 물성을 이해하는 것과 1전시장에서 획을 서술했던 것을 이어서 본다면, 그의 작업 인생이 먹, '수묵'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인 지하 2층은 작가에게 '먹'이라는 재료가 재료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관람객에게 설치를 통해 알린다. 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며 걸어 들어가면 마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건물 밖을 나오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기분이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줄지어 걸려있는 한지는 새벽녘 해가 떠오르는 경관 같기도 하며 혹은 상서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화면 같기도 하다. 선 하나 그어지지 않은 한지가 줄지어 걸린 공간과 그 밑을 가득 채운 먹물은 먹 향이 2 전시장 전체를 가득 채운 이유를 짐작케 한다. 빛을 받아 달같이 묘한 빛을 내뿜는 한지와 공간 전체에 질게 깔린 먹 향은 시각적인 감각 외에 후각과 촉각도 자극한다. 전체 전시의 절정인 공간인 이곳을 등지고 다시 걸어 올라가서 전시장을 나가는 동선은 감상의 연장선을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썩 아쉽기도 하다.

1 전시장부터 2 전시장 전체를 아울러 그는 지필묵의 의미를 설파하고, 수묵의 의미를 설명하는 교재와 같이 작업을 기법에 따라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시도했으며 시각적인 자극 이외에 공감각적인 감각까지 불러일으켰으니, 과연 다음 전시에는 무엇을 시도할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김호득의 전시는 우리로 하여금 수묵의 현 위치와 가능성을 짧은 시간에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작가가 반세기 가까이 그 물성에 대해 탐구한 보고서와 같다. 한 챕터마다 친절히 먹과 획에 대해 서술하는 이 전시는 '수묵'과 '지필묵'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라면 꼭 보며 곱씹어 봐야 할 전시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다음 세대에게 있어 더이상 시도할 먹의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현대미술에 있어 지필묵의 유효성은 무엇일까? 종이, 먹, 종이 이 세 가지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끝내 바닥이 보인다면? 세 가지의 재료로 끌어낼 수 있는 담론과 화면까지 그 모든 확률을 다 시도했다면? 수묵을 구성하는 세 가지 큰 갈래인 종이, 먹, 그리고 종이 이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확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밀레니얼 세대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예전과 다르게 선택지가 점점 좁아 들며 문턱이 높아지고, 중간만 해서는 여간해서는 눈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수묵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 이로서 변명하는 것과 같기도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지필묵만 있어도 고민이 없다면야 완벽하겠지만. >